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創立10周年

한국골수은행협회가 2004년 3월 11일에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협회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골수'란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하였기에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앞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1부 심포지움, 2부 기념행사, 3부 다과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3부 다과회 / 샴페인을 오픈하며 건배 제의를 하고 있는 모습.

祝 辭



김 화 중
보건복지부 장관

먼저 지난 10년 동안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 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김상인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 조혈모세포이식에 의해서만 완치될 수 있는 환자들 중에서 혈연간 적합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환자는 비혈연 골수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적기에 이식해서 근본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비혈연간 조직적합형 일치 확률이 5만분의 1에 불과하여 개인적인 노력으로 적합한 조혈모세포기증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늦었지만 1994년부터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등록 사업을 시작하여 왔고 2003년 말 현재 약 53,000여 명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를 모집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확대하여 2006년까지 10만 명을 모집·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사업이 확장된 이면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 분위기를 조성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온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름 모를 환자들을 위하여 가까이 조혈모세포기증운동에 참여하여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여 주신 조혈모세포기증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고귀한 나눔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줄 등불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울러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1부 심포지움

1부 심포지움에서는 ① '각국의 등록기관 현황 소개'를 박선양(서울대학교 혈액종양내과)교수가, ② '한국인의 HLA양상에 대하여'를 박명희(서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교수가, ③ '조혈모세포 결과보고서 서식'을 윤성수(서울대학교 혈액종양내과)교수가, ④ 'KMDP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성적'에 대하여 서종진(서울아산병원 소아과)교수가 발표해 주었습니다.



▲ 질환별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해 설명하는 박선양 교수



▲ 한국인의 HLA 타입에 관하여 일본인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박명희 교수



▲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 성적에 대해 설명하는 서종진 교수

2부 기념행사

2부 기념행사에서는 협회 경과보고 및 관련 단체와 후원 기업에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협회 회장님의 기념사와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축사와 기증자 동호회인 '징검다리'의 노봉수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 후원 기업

(주)신왕, 동신제약(주), 메디포스트(주), 동아제약(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종근당, 제일기린약품(주), (주)LG생명과학, (주)GMF, (주)녹십자 PBM



◀ 협회 김상인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김종간 감사실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는 모습.



◀ 협회 김상인 회장이 10년 동안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후원하여 주신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는 모습.



◀ 보건복지부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는 보건복지부 오대규 건강증진국장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2006년까지 10만 명을 모집·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의 노봉수 회장
 「작년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대학로에서 조혈 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함께 하면서 아무 후유증이 없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리고 잘못된 선입견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기증자와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자로서 더욱 노력할 것임」

3부 다과회



▲ 협회 감상인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창립10주년 케이크 커팅을 하는 모습.

▼ 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환한 표정들.

